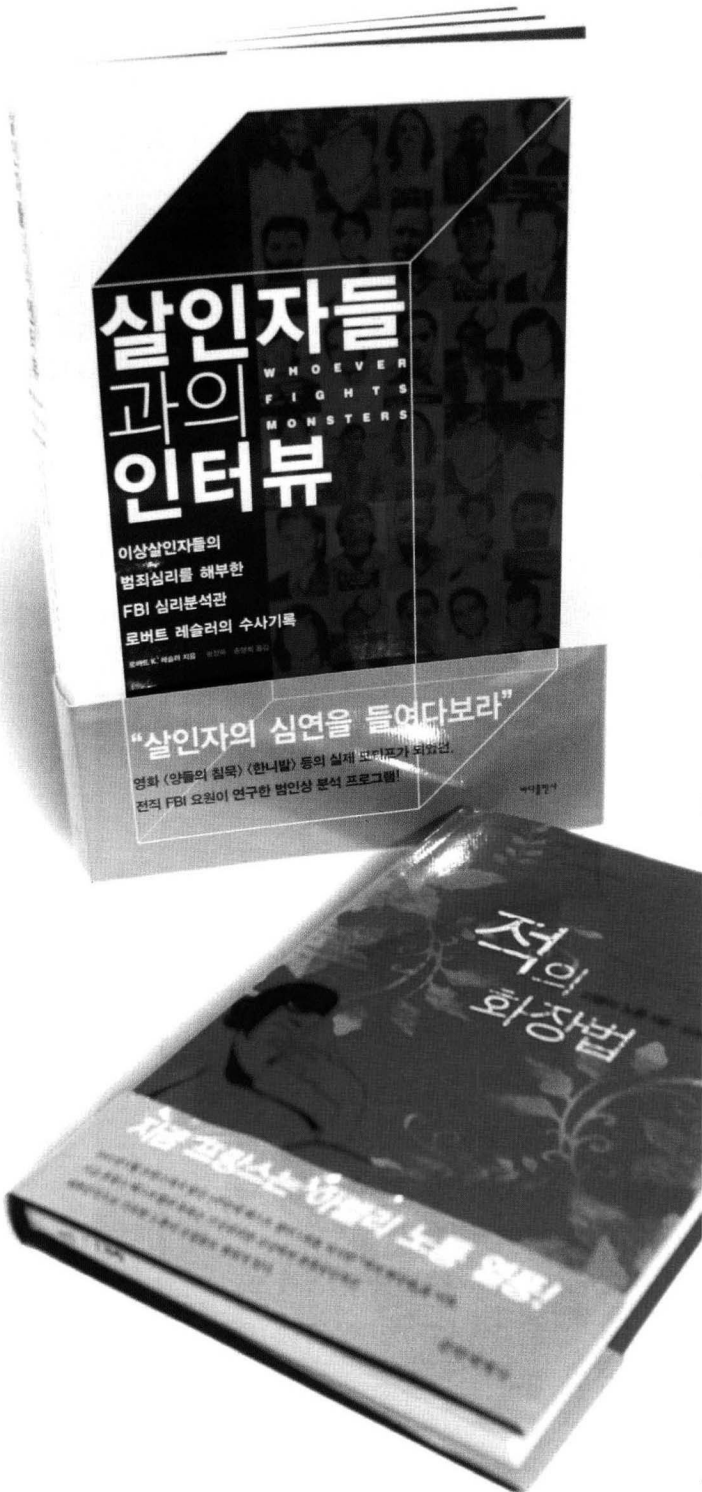


‘살인’이라는 심연

이 글을 쓴 조희정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했고 <인텔리전차>(공저), <대담한 책읽기>(공저) 등의 저자이다. 현재 문학기획 퍼스웹(www.personweb.co.kr) 기획위원으로 활동중이다.



2004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범 유명철이 법정 최고 형인 살인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내가 얼마 전 우연하게도 연쇄살인범들의 인터뷰가 수록된 《살인자들과의 인터뷰》와 살인자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적의 화장법》, 《살인자의 건강법》(아멜리 노통, 문학세계사)을 기꺼이 읽었던 이유는 그 유명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전적으로 내게 ‘살인’이라는 화두를 던진 ‘그 녀석’ 때문이었다. 사연인즉은 이러하다.

나는 대학의 이곳저곳을 떠돌며 강의로 연명하는 소위 보따리 장수다. 그날도 강사에게 재미있는 수업은 학생에게도 재미있다는 ‘무대보적’ 원칙 하에 신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참이었다. 한 친구의 도발적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연쇄살인범에서 논의를 출발한 녀석은 “당신은 왜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강의실은 순식간에 쭈셔놓은 벌집 마냥 소란해졌다. 그 친구를 제외한 모든 수강생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률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A : “누군가 아무 잘못도 없는 당신을 죽여 버린다 해도 상관없단 말인가요?”

B :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해요.”

C : “나는 정말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결코 살인을 선택할 수는 없었죠. 왜냐구요?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B :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카뮈의 《이방인》의 주인공이 저질렀던 것과 유사한 살인입니다. 그 사람은 다만 대낮의 눈부신 태양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게 아닌가요?”

D : “B’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각종 폭력물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너는 너일 뿐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거부하고 모든 개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논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 수 없을 만큼 서로 다른 전제 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수업을 마칠 즈음에는 설득되지 않는 상대를 포기한 채로 스스로의 성채로 돌아가 버렸다.

로버트 K. 레슬리의 책 《살인자들과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온 것

은 바로 그 시점이었다. 로버트 K. 레슬리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해낸 인물로 오랫동안 미국의 군대와 FBI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범 죄 현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예측하는 프로파일링 기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국의 연쇄살인범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시도하였고, 그로부터 연쇄살인범들의 심리 및 성장 배경 등에 대한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레슬리에 의하면 면식범에 의한 살인과 연쇄살인범에 의한 살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전체 살인 중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낯선 사람에 의한 살인, 그리고 연쇄살인범에 의한 살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즉 현대 사회로 올수록 면식범에 의한 살인보다는 낯선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레슬리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는 연쇄살인범의 살인을 일시적인 정신 장애나 충동에 의한 살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들은 7, 8세 때부터 누적되어 온 복합적인 요인(부모의 심리적 학대, 그것을 방치한 학교, 치료 프로그램이 전무한 사회, 그리고 개인의 성격적 무능력 등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살인'에 대한 환상 속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실제 살인으로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들은 한번의 살인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강화하게 되며 환상의 충족을 위해 다음의 살인을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슬리의 책이 살인이라는 현상 그 자체와 살인자의 환경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드러낸다면 아멜리 노통의 소설, 《적의 화장법》과 《살인자의 건강법》은 살인이 살인자 자신조차 어떻게 파괴시켜 가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적의 화장법》의 주인공은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이, 성격, 국적, 심지어 회상이 가능한 기억조차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을 만들으로써 스스로의 도피처를 마련하고자 한다. 물론 중국에 그 도피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살인자의 건강법》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연인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살인 이후의 삶이란, 연인을 살해한 순간 자신의 존재 역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그의 외모, 성격, 심지어 환경조차 모두 바뀌어버린 탓으로 더 이상 그는 예전의

그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로버트 K. 레슬리의 책이든 아멜리 노통의 책이든 '살인'이라는 사건은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 인간의 삶과 뼈로 침입해 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파괴 행위라는 점을 새삼 환기시켜주었다.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이다"라는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면 그것이 담고 있는 사태야말로 얼마나 입체적이고 풍부한 사태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런 점에서 수업 시간에 진행된 우리의 토론은 우발적 살인, 의도적 살인, 연쇄 살인, 실수에 의한 살인, 계획 살인 등등의 각기 다양한 사태를 '살인'이라는 경직된 단어 속에 묶어 다루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문하게 하였다.

로버트 K. 레슬리는 연쇄살인범이란 평생 감옥에 가두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인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나 역시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며, 살인을 반대하는 그 모든 '식상한' 논의들이 안고 있는 무게가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점에 동의해 갈 즈음 떠오른 것은 '김보은 살인 사건'이었다.

연쇄살인범 유명철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는데, 열두 살 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김보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해결책이었던 '살인'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살인'이라는 투박한 용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구절절한 속내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유필**



《살인자들의 인터뷰》 로버트 K. 레슬리 지음 | 황정하·손영희 옮김 | 바다출판사 | 436쪽 | 값 12,800원
《적의 화장법》 아멜리 노통 지음 | 성규수 옮김 | 문학세계사 | 166쪽 | 값 7,800원